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4 남산의 신라부처님

경주 남산에는 골짜기마다 불상이



부처골짜기에 모셔진 감실. 남산이 불교 성지로 바뀌기 시작한 초반에 생긴 불상이다.

경주 남산은 신라불교의 중심지로 신라인들의 신앙이 녹아있는 곳이다. 경주 남산에는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경주 남산은 높이가 468m, 남북길이 8km, 동서 너비가 4km가 되는 산으로 무수한 신라 유적이 남아있다.

남산의 유적들은 신라의 시가지로부터 가까운 북 남산에서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탑곡(塔谷), 불곡(佛谷), 왕정곡 등 남산의 북쪽 기슭에는 신라불교 초기의 모습이 담긴 유적들이 많다. 남산의 불교유적

은 650년대 무렵,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국토를 지상에 옮겨놓은 것으로, 신라 토착 종교의 성지였던 곳을 불교적 모습으로 재색한 것이다.

신라인들의 불국토 사상은 매우 흥미롭다. 당시 경주 시내와 제일 가까웠던 반월성 남쪽 왕정골에는 인용사지(仁容寺址)와 석탑이 있다. 절터는 반월성을 배경으로 남산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인용사는 신라 장군이며 외교가였던 김인문이 당나라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인들이 그의 안경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다. 인용사는 신라가 통일되기 직전에 세운 길로 추정되며,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남산의 장창곡에는 '생의사 석미륵'이라고 추정되는 장창곡 미륵상존불이 있다. 생의사 석미륵은 신라 미륵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장창곡 미륵상존불이 생의사 석미륵이

라는 확정적인 단서는 없지만, 앉아 있는 자세가 미륵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의자상(椅子相)이라는 점과 생의사 석미륵에 관한 기록과 일치한다.

해맑게 미소 지으며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이 미륵불은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돼있다. 미륵신앙은 초기 중국불교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북주(北周: 557~581)의 영향을 받은 아이의 얼굴을 한 동형불(童形佛)은 신라인들에게 불교라는 종교를 보다 친근하게 만들게 했다.

장창곡에서 동쪽으로 가면 불곡이 나온다. 팔그대로 부처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감실(龕室, 벽을 파서 불상을 모시는 장소)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뚝뚝한 눈썹이

하듯 조각돼 있으며, 손의 모양도 선정인(좌선을 하고 있는 손 모양)으로 웃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부처님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하지만, 남산이 불교의 성지로 바뀌기 시작한 초반에 생긴 불상으로 보인다.

남산을 중심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신앙은 신라불교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앙이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남산을 불교의 색채로 새롭게 물들여 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인문

김인문 장군 무사기원 하던 인용사 미륵신앙의 상징 생의사 석미륵 등 민중 불교가 남산을 불교로 물들여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저기 저 빈 배치림

저기 저 빈 배치림 가벼워지고 싶다. 저기 저 빈 배치림 고요해지고 싶다. 가벼울 때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 질 때 더불어 상생하며 소통한다. 비워 있음은 나눔이며 나눔은 고요함이며 고요할 때 서로의 맥박과 호흡소리를 듣는다. 인근 봄바람은 텅 빈 배에 내려와 머물다 간다. 오늘 나의 일상은 저기 저 빈 배치림 가벼워지고 고요해졌으면 싶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김양수

한국의 전시감상④ 고려 나옹혜근 전사의 '경세(警世)'

이번 생에 어긋나면 어려워니

百年只是暫時間 (백년지시잠시간) 莫把光陰當等閑 (막파광음당등한) 努力修行成佛易 (노력수행성불이) 今生差過出頭難 (금생차과출두난) 無常忽到教誰替 (무상홀도교수계) 有債元來用自還 (유채원래용자환) 若要未經聞老案 (약오불경연노안) 直須參透祖師關 (직수참투조사관)

고려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스님은 20세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출가, 회암사에서 4년간 정진 끝에 깨달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지공(指空)·평산처림(平山處林) 선사를 참방하고 법을 이

백년은 잠깐사이일 뿐이니 시간을 동안하지 말라.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되기 쉬우나 이번 생에 어긋나버리면 벗어나기 어렵나니, 무상이 문득 이르면 누구에게 대신하게 할 것인가? 빛이 있으면 원래 스스로 돌아올 수밖에. 만약 염라왕의 심문을 받지 않고자한다면 곧바로 조사의 관문을 참구하여 뛰어 넘어 하라.

었는데 스님의 명성이 알려져 황제로부터 금란가사를 하사받았다. 고려로 돌아온 이후 공민왕의 왕사가 됐으며 원적 후 보제존자(普濟尊者)로 추앙받았다. 위의 시는 세상 사람들을 경책한 것으로서 스님

은 후대를 위해 상징성보다는 불법을 직접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했다. 스님은 세상에 대한 빛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고 이 윤회의 사슬을 영원히 끊는 길은 조사선을 타듯하는 길이며 그 방법으로 수행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심지어 수행조차도 조금하다가 진전이 없다고 여겨지면 쉽게 돌아서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 내놓은 1만 시간의 법칙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수행방법이 곧 그것이며 그 수행방법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늘이 시간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집중해보자. 오늘보다 청량한 내일이 기다릴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一人一燈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1인1등 연꽃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정엄을 할 수 있습니다.



一人一燈 연꽃밀납양초 배치모습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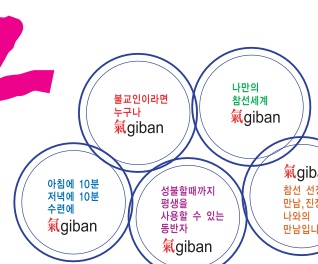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발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 02)2004-8216

동행 053-01-28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